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음 3월 7일) 제22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의료 취약지 주민 만족도 향상 모색

송하진 도지사, 남원시 방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지서 간담회 가져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인 등 의견 청취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전북도도약을 향한 시군 방문 네번째로 남원을 찾은 가운데 이환주 시장과 함께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예정지를 방문해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차별 없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 의료 만족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시군 방문 네 번째로 남원시를 찾았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바이오 뉴터 분야 천연화장품산업 선도하고 있는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와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부지를 찾아 기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원료부터 제품생산까지의 천연화장품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다.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노암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2011년 단지조성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CGMP 생산시설이 2017년에는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건립, 올해 말에는 천연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기업입주시설인 지식산업센터까지 건립되면 천연화장품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곳에서 지원센터 현장을 시찰하고 천연화장품산업 육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장품기업인 및 지원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리에 함께한 정경은 지리산처럼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미래 유망사업 중의 하나인 화장품산업을 도에서 집중 육성해 주실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은 우리도 7개 대표산업 중의 하나로 지정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희 (주)원스킨화장품 대표는 "화장품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도에서 화장품 산업인력 및 연구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해 주실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시작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도 청년들의 지원이 적었던 것을 알

고 있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채용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도내 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천연물 화장품원료사업 집중 육성을 위해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식물자원 보고를 기반으로 허브산업과 전통문화산업이 어우러져 화장품 전후방산업이 집적화되는 남원만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차별 없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 의료 만족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전북도, 남원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립관련한 정부예산 편성과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9월에 발의된 설립근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김용준 공동대표는 현재 공공의료대학원은 취약한 동부권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대응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는 2022년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 일정이 차질 없도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공청회 개최, 법안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12면 · '익산문화재 야행' 12일 개최

##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생태계 구축

도,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모집... 내년까지 30억 투입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관련업체의 기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업다각화 및 고도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전북도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지원기업을 모집 중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조선해양기자재 관련기업 혹은 관련분야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오는 26일까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온라인 접수 혹은 방문접수 중으로 세부사항은 전북새만금산학융

합원 공고문 혹은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입하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내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수요대응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수요기반 제품고급화 지원(시험인증, 특허 등) △국외시장 개척 및 해외 바이어 연계 지원 등이다. /김진성 기자

## 송하진 도지사, '호남 미래포럼' 특강

### "희망의 시대 조성 온 힘"

"지역 불균형 악순환의 고리 끊고 힘차게 나아가야"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세라톤 서울팔레스호텔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이 주최하는 제24회 조찬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특강을 진행했다.

'천년 전라도, 미래 천년을 향해 나아가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송 지사는 40년 넘게 지방행정 전문가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느꼈던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면서 "지난 40년간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우리 전라도가 '영광의 농업시대'를 새로이 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끈질기게 고민하고 뛰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1960년대 경부축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전라도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은 낙후를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마저 떨어져 모든 지표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며, "이제야말로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천년을 이어 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

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을 거쳐 전북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전주한옥마을, '전주탄소산업', '농생명산업', '새만금 국제공항',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토탈관공'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린 정책으로 전북 대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면서 "최근 들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생태계 구축사업의 예타면제, MS 컨소시엄 GM군산공장 인수 등으로 전북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라도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렸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신념만이 전북 체질의 개선, 전라도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 전라도가 절망의 산업시대를 종식하고 전라도가 크게 도약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